LH 한국토지주택공사 | 보도자료 | 희망을 위한 LH의 약속, Life with Hope

배포 2026. 11. 03.(화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 앞장

- 통합놀이시설 디자인공모 당선작 선정…12월 시흥하중 공공주택에 적용
- 장애·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 및 확대 추진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공주택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'통합놀이시설 디자인 공모'를 시행하고,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○ LH는 공공주택 놀이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'공공주택 놀이환경 구축방안'을 수립하고, 지난해 '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'과 표준형 모델을 개발하는 등 놀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.

○ 올해 6월에는 '통합놀이시설 디자인공모'를 시행했다. 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(Inclusive Playground)를 공공주택에 도입하기 위함으로, 실제 공공주택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

○ 최종 당선작은 '빛나는 은하수'를 주제로 창의적인 공간 디자인과 다양한 놀이활동을 결합한 ㈜스페이스톡의 'All-rounder playground'이다. 경쾌한 색채와 유선형 디자인을 활용해 공간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높였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로와 높이별 놀이공간, 다양한 단위 놀이시설을 연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○ LH는 이번 공모 당선작을 오는 12월 공사 발주 예정인 시흥하중 A-4BL에 적용해 공공주택 최초로 통합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. 아울러, 2027년에는 다른 공공주택 단지로 적용을 확대해 모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“이번 공모는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기존 주택단지에서의 경험을 넘어서는 차별화된 놀이환경을 선보이고, 아이 키우기 더 좋은 공공주택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“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주거환경계획단	책임자	팀 장	이민수	(055-922-6660)
		담당자	차 장	하혜경	(055-922-6661)

참 고 **관련 자료**



당선작 "All-rounder playground" 조감도